

[P3 - 4]

신문 기사의 영양정보 모니터링

안윤*, 문은혜, 김경원, 윤은영¹⁾, 배현주²⁾, 서정숙³⁾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³⁾

Monitoring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Nutrition Information

Yun Ahn*, Eun-Hye Moon, Kyungwon Kim, Eunyoung Yoon¹⁾, Hyun-Joo Bae²⁾,
Jung Sook Seo³⁾.

Food & Nutri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Dept. Food & Nutri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¹⁾, Dept. Food & Nutri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²⁾,
Dept. Food & Nutrition, Younghan University, Daegu, Korea³⁾

최근 건강과 영양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신문 등 대중 매체에서 질병과 식품, 영양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에 나타난 영양정보를 수집, 모니터링하여 이의 정확성, 과학적 근거 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3년 11월에서 2004년 4월까지 4대 일간지(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중 검색어(영양, 영양표시, 건강기능성, 식품위생, 식품안전성)를 이용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부적합한 기사를 제외한 총 216건을 모니터링 항목 및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서식에는 기사의 분류(보도기사, 인터뷰 기사 등), 대상, 주제(식품, 음식과 조리, 균형식, 비만과 다이어트 등),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었다.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내용 2항목(경각심 유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보), 부정적 내용 11항목(내용과 제목의 일치성, 전문용어 설명, 과학적 근거 부족, 명확성 부족, 과장, 간접 광고 등)을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별로는 음식과 요리(19.1%), 질병과 식품/영양(18.1%) 관련 내용이 많았고, 식품의 위생/안전성/유해성(12.5%), 비만과 다이어트(12.5%)의 순이었다. 기사 형식별로 볼 때 보도기사(44%)가 가장 많았고, 기획물(14.8%), 기사식 광고(12.9%), 전문가 연재물(11.6%)의 순이었다. 취재원별 분석 결과, 약 19%는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전문가 인터뷰(20.8%), 연구 보고서(14.8%), 현장 보고서(12.1%) 등이었다. 모니터링한 기사의 대다수(76.8%)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었고, 이외에 일반 성인(11.1%), 어린이(7.9%)를 위한 기사였다.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 '특정 주제에 대한 경각심 유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보의 제공' 등 긍정적 항목에 '매우 그렇다'가 각각 26.4%, 23.6%로 조사되었다. 평가 항목 중 '주제별 내용의 과학적 근거 부족', '특정 분야만 강조하여 균형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내용의 명확성',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과학적 근거, 명확성, 균형성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 광고는 해당 기사 중 75%가 '매우 그렇다', '보통'으로 평가되어 영양관련 기사에서 간접 광고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 '이해도', '내용의 과장' 등 항목에서는 약 80%의 기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영양관련 기사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술됨을 알 수 있었다. 모니터링 결과, 신문의 영양관련 기사는 독자의 이해도, 실생활 정보 제공 등의 측면은 비교적 고려되었으나 내용의 과학적 근거, 균형성, 명확성, 전문용어 설명 등이 보완되고 간접 광고의 내용은 줄여야 할 것이다.

* 이 연구는 200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